

잉카리신화, 안데스의 염원*

강성식(서울대)**

- I. 들어가는 말
- II. 잉카리신화의 형성 배경
- III. 잉카왕의 원형화와 신화화
- IV. 종교혼합과 부활의 모티브
- V. 잉카리신화의 메시아사상
- V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신대륙’은 왜 ‘발견’되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건 이후 벌어진 각종 힘겨루기에서 유럽이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메리카 ‘정복’은 승자인 유럽인들에게는 새로운 시대, 즉 르네상스와 근대의 도래를 의미했지만, 패자인 아메리카인들에게는 파국을 의미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유럽의 논리와 시각에는 익숙한 반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 역사를 어떻게 느끼고 해석했으며 또 집단 기억 속에 어떤 방식으로 간직해왔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통치’라는 역사적 대사건에 대한 안데스인들 시각의 한 단면을 엿보기 위해

* 이 논문은 2006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6-321-A01195).

** Seong-Sik Kang(Seoul National University, kongyonga@hotmail.com), “El Anhel de los Andes en el Mito de Incari”.

안데스 지역의 메시아신화인 ‘잉카리신화(mito de Incari)’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누엘 부르가는 원주민들이 안데스 유토피아의 해석과 표현을 변화시킨 결과가 잉카리신화라고 한다(Manuel Burga 2005, 19). 잉카리신화는 안데스 유토피아가 압축된 고갱이라는 말이다. 아르케다스(Arguedas), 알레한드로 오르티스(Alejandro Ortiz), 플로레스 갈린도(Flores Galindo) 등이 그 신화에 주목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잉카왕의 부활과 심판이라는 모티브를 담고 있는 잉카리신화는 안데스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또 유사한 염원을 담은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잉카리의 도래에 대한 안데스인들의 염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신화 속의 잉카왕은 역사적인 존재를 넘어선 일종의 원형으로 변해서 오늘날까지도 안데스인들의 의식구조를 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안데스 원주민 의식의 결정체인 잉카리신화 연구는 패배한 안데스인들과 그 신들이 내는 가성(假聲)의 행간을 읽는 작업이라고 하겠다.

메시아신화의 일종이라는 특성상 잉카리신화는 식민기로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진 여러 안데스 사회운동과 연관되어 있다. 소리아노(Soriano)는 후안 산토스 아따왈빠(Juan Santos Atahualpa)와 흔히 투팍 아마루(Túpac Amaru) 2세로 불리는 호세 가브리엘 콘도르캉끼(José Gabriel Condorcanqui) 같은 봉기 지도자들이 정치, 경제, 예술 등에 걸친 휩박이라는 안데스의 위기를 신화적이고 의례적인 구원을 통해 극복하려 했다고 지적한다(Ossio 1973, 148-149). 사실 멕시코 지역에서도 ‘정복’ 이후에 천년왕국운동 성격의 봉기가 발생하지만 그 곳의 봉기는 제한적인 지역에서 발생해 단기간에 끝나고 말아, 안데스 지역의 메시아운동이 전면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과는 차이점을 드러낸다. 그 같은 차이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잉카리신화와 같은 메시아사상의 뒷받침이 있고 없고의 문제도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가령 아스테카 왕의 부활 신화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유독 안데스에서는 잉카리신화와 같은 메시아적 염원을 담

은 신화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따라서 잉카리신화와 사회적 움직임의 연관관계를 분석하고 밝히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잉카리신화가 안데스의 정치·사회 문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의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남기기로 하고 대신 신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교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또 어떤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또한 잉카리신화에 가톨릭 사상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안데스 토착 종교 사상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는 것 역시 이 글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잉카리신화 형성의 전반적인 배경을 간단히 짚어 보고 그 다음 장들에서 주로 잉카리신화에 담긴 종교적인 면모, 즉 원형화를 통한 잉카왕과 역사의 신화화, 가톨릭 신앙과의 종교혼합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활 모티브, 메시아사상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복’에 대한 안데스인들 시각의 몇몇 단면들과 패자인 그들의 염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리라고 본다.

II. 잉카리신화의 형성 배경

소위 ‘정복’ 이후에도 잉카왕은 대다수 안데스 원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였다. 『페루 역사 *Historia general del Perú*』(1616)에서 마지막 잉카왕 뚜빱 아마루의 참수 순간을 다루는 부분은 이를 확인시켜 준다(Garcilaso de la Vega 1977, III, 873). 오열과 비명 속에 잉카왕의 처형 장면을 지켜보던 원주민들 사이에 동요의 조짐이 보이자, 혼란을 우려한 가톨릭 사제들이 잉카왕에게 그들을 진정시켜 달라고 부탁하는데, 단 한 번의 손짓으로 원주민들의 복종을 이끌어 내는 뚜빱 아마루의 모습을 본 스페인인들은 잉카왕에 대한 원주민들의 충성심에 경이로워한다. 설령 스페인인들이 원주민 통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옹립한 왕이라 해도, 그 권위는 여전히 막대했다. 그런데 꼭두

각시 잉카왕일지언정 어쨌든 왕이었던 망코 잉카(Manco Inca)는 스페인의 일개 병사에게 구타당하는가 하면 오줌 세례까지 받는 등 한 때 극도의 멸시를 당한다. 신에 버금가는 존재인 잉카왕이 그런 수모를 겪는 모습을 지켜본 원주민들의 절망감과 허탈감, 분노가 어떠했을지는 차라리 헤아리기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위 예는 ‘정복’에서 비롯된 비극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안데스인들에게 ‘정복’은 자신들의 전통이나 삶의 방식, 문화는 물론이고 종교나 신마저 잃게 되는 대참사이자 고통이었다. 특히 초기에 있어서 ‘발견’, ‘정복’, ‘식민통치’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은 문화흡수(aculturación)라기보다는 문화해체(deculturación)에 가까웠고, 유럽과 안데스의 문화가 혼합되기 보다는 병치 상태에 놓이게 된다. 당시 일부 쿠스코(Cusco) 원주민 고위층들이 일종의 보상 심리로 복식을 비롯해 여러 면에서 스페인인들을 모방하지만, 이 같은 문화수용이나 혼합은 일부 ‘꾸라까(curaca)’¹⁾ 계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일어난 일로 대다수 안데스인들과는 무관했다. 이와 같은 상이한 두 가치체계의 공존과 충돌은 원주민들이 식민시기 내내 ‘정복’에 뒤따르는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한 원인이 되었고, ‘정복’ 당시의 모멸감이 심지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엘리아데에 의하면, 사람들은 고통의 외형적인 표층에 머물러 있을 때, 다시 말해 ‘고통의 현상’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고통을 견뎌내기 어려운 이른바 ‘고통의 위기’에 처한다(1985, 139). ‘정복’ 이후 잉카 가르실라소나 와망 뽀마(Guaman Poma) 같은 문화적 메스티소들은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어 그 사건을 설명했지만,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그 엄청난 격변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해 공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 안데스인들도 ‘고통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대중들은 고통 속에서도 차츰 문화혼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한편 변혁으로 야기된 비극을 설명해냄으로써

1) 잉카 가르실라소의 『잉카왕조사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에 의하면 ‘까시케(cacique)’와 같은 의미로 ‘백성의 주인(señor de vasallos)’을 뜻한다(1995, I, 53). 간단히 말해, 잉카사회 각 씨족이나 부족의 장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어느 정도 위안을 얻고 또 어두운 현실을 보상받을 미래에 대한 염원을 품기 마련이다. 그런 위안이나 염원이 형성, 표출되는 대표적인 장은 바로 민담이나 전설과 같은 장이고, 염원이 극도로 간절하면 신화, 그 중에서도 메시아신화가 형성된다. 안데스의 경우는 잉카리신화가 이에 해당한다.

잉카리신화는 뚜빱 아마루 1세의 처형(1572)으로 대략 17세기 초엽에 생성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에 안데스 전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는 설이 일반적이다. 1953년 처음으로 그 존재가 알려진 이후, 1953-1972년 사이에만 안데스 전역에서 약 15종의 잉카리신화가 채집되었다(Flores Galindo 1994, 19).²⁾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잉카리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태양의 아들인 잉카리는 수도 쿠스코를 창건한 영웅이자 신성한 존재다. 그런데 스페인인들이 그를 포로로 잡아 목을 자른 다음 그 머리를 어디론가 가져간다. 그 머리는 지금 아래를 향해 자라고 있는데, 잉카리의 몸과 사지가 다 자라 완전해지면 다시 돌아와 심판을 내릴 것이다.

이와 같은 중심 내용 외에도 여러 잉카리신화들에서 자주 반복되는 신화소들을 살펴보면, 잉카리는 바람이나 태양을 묶는 등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문화 영웅이라는 점, 잉카리의 죽음으로 금과 은이 소실되었다는 점, 구전문화와 문자문화의 충돌 양상 등이다. 그리고 안데스와 유럽 간의 첫 조우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의 주요 국면인 ‘낮선 이’들의 등장, 까하마르까(Cajamarca)에서의 첫 대면,

2) 구전문화의 특성상 정확히 몇 편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통해 잉카리신화들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Edmundo Bendezú Aibar(2003, 263-275)의 저서에 9편이, 그리고 Mercedes López-Baralt(1996, 93-100)의 저서에 8편이 실려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중복되지만 다른 유형도 존재한다. 가령 Juan M. Ossio A.(ed.)(1973)의 *Ideología mesiánica del mundo andino*(2ª ed., Lima: Ignacio Prado Pastor)에는 여러 신화들이 실려 있는데, 동일한 신화이면서 내용이 다소 변형된 이형 신화들도 수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Alejandro Ortiz Rescaniere(1973)의 *De Adaneva a Inkarrí: una visión indígena del Perú*(Lima: Retablo de Papel, pp. 133-134)와 Luis Millones(2000)의 *Dioses familiares*(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pp. 40-41)에는 앞서 언급한 책들에 등장하지 않는 신화가 한 편씩 나온다.

변변한 저항조차 못한 잉카왕의 붙들림, 잉카왕의 몸값 제공, 아파왈 빠(Atahualpa)의 죽음 등이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건의 논리적 설명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로 작용하면서 신화를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신화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고 비슷한 테마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은 ‘정복’이나 식민통치에 대한 안데스인들의 신화적 해석 중에서도 잉카리신화가 가장 체계적인 것임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는 ‘정복’에 대한 안데스인들의 시각을 살피는 연구에서 잉카리신화가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복’ 직후인 1537-1548년은 스페인 인들 간의 내전 시기여서 무정부 상태, 폭력, 무능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데다가 그 와중에 원주민 인구마저 급감하여 혼란이 가중된다. 그런데 초기의 이런 정치·사회적 배경에 안데스의 신화적 역사관이 맞물리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사르미엔토 데 감보아(Sarmiento de Gamboa)는 잉카제국이 565년에 창건되었고, 따라서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1565년은 대 변혁기인 ‘빠차꾸띠(pachacuti)’ 시기였다고 한다(Ossio 1973, 120).³⁾ 안데스 전통 종교로의 회귀, 즉 ‘와까(huaca)’⁴⁾로의 복귀를 내세운 토착종교 운동인 ‘따끼 옹고이(Taqui Ongoy) 운동’이 그 시기에 발생했던 사실이나 잉카왕 띠티꾸 쿠시(Titu Cusi)가 비슷한 시기에 피난처인 빌까밤바(Vilcabamba)에서 잉카왕조 재건을 위한 봉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실 등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안데스 역사관에 따른 움직임이었던 것이다.

1560년-1570년 무렵의 정치·사회적 상황 변화에는 스페인인들과 일부 꾸라카들 간의 동맹관계 부식이라는 요인도 관계되어 있다. 특히 뚜빱 아마루의 죽음을 전후한 시기에 톨레도(Toledo) 부왕은 쿠스코의 친 스페인계 고위층 원주민들과의 기존 관계를 단절시킨다. 때문에 궁핍해진 잉카 고위층이 혼해져서 신세 한탄을 하는 경우가 많

3) 안데스의 신화적 역사관에 따른 해석인데, 해석에 따라 시기 차이가 나서 이 연대를 정확한 연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문자가 없어 신화가 곧 역사였던 안데스 역사관에 따르면, 세상은 매 500년 마다 뒤집히는데, 이를 ‘빠차꾸띠’라고 한다. 대체로 1560년-1570년 무렵이 그 변혁기에 해당했다.

4) 안데스인들이 신령스럽게 생각했던 숭배 대상을 ‘와까’라고 한다.

아지고,⁵⁾ 심지어는 기록권을 누리던 과거 잉카왕 시대를 그리워하면서 미화하게 된다. 당시 기록에서도 이런 변화상이 감지되는데, 가령 같은 시기의 인물이면서 다른 지역 출신인 잉카 가르실라소와 블라스 발레라(Blas Valera)는 둘 다 잉카사회를 이상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시기의 잉카사회 미화 움직임은 어느 개인의 자의적 성찰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Burga 2005, 329). 실제 잉카 가르실라소는 『잉카왕조사』가 쿠스코의 구전에 깊이 영향을 받았다고 밝히는데, 이는 그 연대기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 안데스 대중들의 집단 의식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요컨대 잉카리신화에 내포되어 나타나는 사고의 일부가 당시 안데스에서 널리 공감을 얻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석균(2005, 13-14)도 지적하듯, 안데스에서 ‘정복’ 전 잉카왕의 위상과 ‘정복’ 후 잉카왕의 위상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잉카제국은 영토 확장 과정에서 주변 여러 부족으로부터 많은 원한을 산다. ‘정복’ 당시 스페인 편에 섰던 까냐리(cañari) 족이 뚜박 아마루의 참수형 집행자 역할까지 했고,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따끼 옹고이 운동을 주도하던 세력들이 따뚜 꾸시와의 협력을 거부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심지어 만타로(Mantaro) 계곡의 왕까(Huanca)인들에게는 아직도 잉카왕이 조롱거리라고 한다(Flores Galindo 1994, 93). 게다가 반목은 잉카들 내부에도 존재했다. 쿠스코 귀족들은 ‘왕위찬탈자’인 아따왈빠 처형에 대해 끼또(Quito) 군에게 빼앗겼던 권력을 쿠스코가 되찾아 온 것으로 보고 노골적으로 반기면서 잔치를 열어 스페인인들과 새 잉카왕의 귀환을 환영했다.

이처럼 ‘정복’ 전의 안데스 지역이 잉카왕을 정점으로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고 있던 사회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당시에 잉카왕이 안데스에서 구심력으로 작용했다면, 그것은 잉카왕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종교적 구심력에 절대

5) 『페루 역사』(1977, III, 869)에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나온다. 뚜박 아마루 처형 후 36명의 원주민 귀족과 뚜박 아마루의 열 살이 못된 아들 2명, 딸 1명을 리마로 유배시키는데, 2년 후에 그 39명 중 35명이 사망했고, 그 중에는 뚜박 아마루의 아들 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권력자라는 권위에 의한 강제적인 구심력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스페인의 ‘정복’으로 잉카왕을 포함한 전 안데스인들이 참담한 처지에 빠지자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그 과정에서 잉카왕의 두 구심력 중 자발성이라는 한 쪽 축이 부각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사라지고 존재하지도 않는 잉카왕이 ‘잉카리’로 다시 태어나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한층 강력한 구심점이 된다.⁶⁾

III. 잉카왕의 원형화와 신화화

잉카사회에 대한 이상화는 혼란스러운 식민 질서 패러다임에 대한 대안이 잉카제국과 동일시되면서 16세기부터 집단 기억과 상상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창조된 결과다. 와이나 까빠(Huayna Capac)의 급사, 아파왈빠의 교수형, 뚜빠 왈빠(Tupac Huallpa)의 독살, 망꼬 잉카의 피살, 사이리 뚜빠(Sayri Túpac)의 의문사, 뚜빠 아마루의 참수 등 ‘정복’을 전후한 시기의 잉카왕들은 하나 같이 변고를 겪는다. 이런 재앙에 직면한 대부분의 원주민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 끊임없이 물으며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또 스스로 답해야 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역사적 사건을 신화적 모델과 동화시키고 역사적 인물을 신화적 행동의 범주와 일치시켜 기억하는 경향을 보인다(엘리아데 1985, 70-71). 하지만 그런 과정은 자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의 논리적 일관성을 갖는다. 따끼 옹고이 운동이나 와망 뽀마 연대기의 기저에는 안데스 우주관이나 시간관에 근거한 신화적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잉카리신화의 경우에도 안데스의 종교관이나 우주관과 연관된 요인이 논리 전개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잉카리’는 ‘잉카 레이(Inka rey)’, 즉 잉카왕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본 글에서는 신화 속의 인물은 ‘잉카리’로, 실존 인물은 ‘잉카왕’으로 지칭해서 둘을 구분했다. 또한 ‘잉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여타의 일반 잉카 왕족을 가리킨다.

잉카 ‘정복’에서 가장 극적인 두 사건은 아파왈빠의 교수형과 뚜빠 아마루의 참수다. 그런데 신화에서는 이 두 왕이 융합되어, 아파왈빠가 참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피즈(Pease)는 이러한 변형이 일어난 시기를 1565-1650년 사이로 보면서 이를 아파왈빠 잉카리가 구원자로 변하는 첫걸음이라고 한다(Gow 1980, 292). 또한 아파왈빠의 죽음에 뚜빠 아마루의 죽음이 겹쳐 나타난다는 사실이 암시해주듯, 뚜빠 아마루의 죽음은 신화와 관련해서는 물론이고 정치·사회적으로도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의 참수가 따가 웅고이 운동을 비롯해서 빌카밤바의 신 잉카왕조 등으로 대표되는 원주민 저항운동의 결정적인 좌절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와망 뿌마 연대기의 삽화에서도 아파왈빠는 참수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모습과 뚜빠 아마루의 참수 모습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두 삽화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아파왈빠 처형 장면에는 스페인인의 환호가 나타나지만, 뚜빠 아마루 참수 장면에는 안데스인들의 통곡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저항운동의 좌절에서 비롯된 절망감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안데스 내부 분열의 봉합과 잉카사회에 대한 이상화의 과정에는 대립의 주축이 안데스 대 스페인임을 각인시키는 궁극적 계기였던 뚜빠 아마루의 참수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사실상 뚜빠 아마루의 가혹한 처형은 안데스에서는 물론 스페인에서도 톨레도의 통치 방식과 쿠스코 고위층의 홀대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 사건은 안데스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해 톨레도를 부정과 전횡의 화신으로, 뚜빠 아마루를 연민과 사랑의 대상으로 바꾸어 놓는 결과를 낳게 된다(Burga 2005, 159). 이렇게 변화된 잉카왕에 대한 기억은 17세기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해 18세기에는 절정을 이루고 보편화된다.

그렇다면 잉카왕의 죽음은 안데스인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태양신의 아들 잉카왕은 지배자이자 백성들의 아버지인 동시에 태양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매개자로서 사실상 태양과 동격이며 따라서 권능을 갖춘 존재였다. 와첼은 그런 잉카왕의 죽음을 ‘우주

적 단절(*ruptura cósmica*)'이라 표현하고, 세 가지 단절, 즉 원주민과 스페인인, 잉카왕과 백성, 하늘과 땅의 단절을 상징한다고 본다(Wachtel 1976, 71). 신화에서는 이러한 단절이 '목 잘림'의 테마로 형상화되고 있다. 잉카왕이 안데스인의 지도자, 즉 '머리(*cabeza*)'이기에 잉카왕의 '머리'를 자른 것은 안데스의 '머리'를 자른 것이 된다. 동시에 그것은 태양신과 안데스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파왈빠의 교수형이 잉카리신화나 와망 뽀마의 삽화에서 참수형으로 변한 한 이유는 이런 상징성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피즈는 참수가 교수형보다 신화적 가능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일어난 변형이라고 주장한다(López-Baralt 1998, 26). 와첼의 지적처럼 안데스인들이 뚜빱 아마루의 죽음에서 아파왈빠의 죽음을 떠올렸겠지만(Ossio 1973, 124), 그렇다고 아파왈빠의 참수 모티브가 뚜빱 아마루 죽음과의 단순한 혼동에서 생겨난 것은 분명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윌프레도 캡솔리 에스쿠데로(Wilfredo Kapsoli Escudero)는 당시 여러 잉카와 권력자(*senores*)들이 실제로 그렇게 참수 당했고, 그래서 안데스인들이 그 과정에서 느낀 치욕을 추상화시켜 역사적 지속성을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Merino de Zela 1999, 128). 그렇다면 잉카리신화의 아파왈빠는 당시 여러 안데스인의 대명사요 그런 아파왈빠 혹은 뚜빱 아마루의 참수는 '정복'의 상징화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 '정복'에는 또 다른 차원의 의미가 숨어 있다.

와망 뽀마가 그린 '교황의 세계(*Pontifical mundo*)'와 '세상의 왕국'이라는 일종의 세계지도는 우주의 축도요 여러 신들을 상징하는 '만다라'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안데스에는 신도 왕도 질서도 없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만다라는 스페인에는 왕, 안데스에는 잉카왕, 로마에는 교황이 있어야 하며 따라서 정당한 잉카정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의 삽화에 나타나는 잉카왕들 죽음의 동일시는 '정복'에서 비롯된 '단절', '분리' 그리고 '혼돈'의 메타포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데스의 시공을 분석한 다음, '정복'을 일종의 빠차꾸띠로 받아들인 와망 뽀마에게 잉카리와 에스파냐리(*Españarri*)의 대결

은 역사적 사건이 아닌 신들의 전쟁, 우주전쟁이었던 것이다. 신화는 그 우주전쟁에서 안데스가 패한 결과 고통스런 현실이 닥쳤다고 설명한다.

잉카리신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과거의 인간(Los hombres del pasado)’ 신화에서는 잉카리 최초의 두 업적이 고지대로 물을 흘려보내고 태양을 묶어 낮을 길게 한 것인데, 이 두 일로 카오스 상태가 끝나지만, 유럽 문명이 들어오고 잉카리가 죽자 고지대 사람들은 물론 물도 저지대로 내려가 세례를 받으면서 다시 카오스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이 신화는 ‘아난(hanan, 高)’과 ‘우린(hurin, 低)’이라는 안데스 전통의 이원론(dualismo)에 기초해 과거와 현재를 설명하면서 과거인 잉카리의 시대를 ‘고, 질서, 풍요, 신화적 시간’ 등의 개념에 연결시키는 반면 현재인 에스파냐리의 시대를 ‘저, 무질서, 궁핍, 역사적 시간’ 등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Ossio 1973, 341-342). 그러므로 잉카왕의 죽음은 다중적인 단절과 분리의 메타포로 작용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 | | |
|-------------|--------|------|
| 잉카왕 개인 차원 | 머리 | 몸 |
| 안데스 내부 차원 | 잉카왕 | 백성 |
| 스페인과의 관계 차원 | 안데스인 | 스페인인 |
| 현실과 이상 차원 | 이상 | 현실 |
| 종교 차원 | 하늘(태양) | 땅 |

‘과거의 인간’ 신화에서 보듯, 잉카리신화는 ‘정복’ 문제를 넘어서서 안데스 역사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 시·공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다. 터너(Turner)는 잉카리라는 존재를 하나의 범주로 간주, ‘ 지배적 상징(símbolo dominante)’이라 칭하면서 잉카리는 생생하고 풍부한 이미지는 물론 모순되는 것까지 포함한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다고 본다(López-Baralt 1998, 31). 실제로 잉카리는 창조 행위 혹은 영웅적 업적을 통해 인간 삶과 우주에 시작을 부여한 초역사적 존재

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1953년 아르케다스가 뿌끼오(Puquio)에서 채집한 신화 역시 잉카리가 돌에게 명령하고 바람을 가두고 태양을 묶어 쿠스코를 창건한 것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이는 첫 잉카왕 망꼬 까빱(Manco Cápac)과 그의 누이이자 부인인 마마 오끄요(Mama Ocllo)의 따완틴수유(Tahuantinsuyu) 창건신화와 거의 일치한다. 그 외에도 두 신화는 그 주인공이 태양의 아들이고, 창건에 황금 막대기를 이용하며, 문명화의 주역이라는 공통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둘은 아주 중요한 질적 차이를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망꼬 까빱이 태양에 종속되는 반면, 잉카리는 태양을 지배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잉카리는 태양을 붙들어 시간을 늘린 시간 창조자이자 바람과 돌의 복종을 통한 공간 창조자로 특정의 잉카왕을 넘어선 존재다. 사실상 여러 신화 속의 잉카리는 각 신화에 따라 때로는 권력자(제2의 신) 또 때로는 제1의 신이라는 특징을 보여주는 범주화된 인물, 즉 신화적 원형의 면모를 보여준다.⁷⁾ 따라서 잉카리는 아따왈빠, 뚜빱 아마루 뿐만 아니라 망꼬 까빱이기도 하고 다른 여러 잉카왕일 수도 있다.⁸⁾ 그리고 뿌끼오 신화에 결합되어 있는 창건신화는 세상의 기원을 해명하는 것으로, ‘따완틴수유 창건’은 ‘코스모스’의 기원이요 ‘정복’은 ‘카오스’의 기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의미에서 잉카리신화는 ‘뒤집힌 세상의 기원신화’라 하겠는데, 그 구조를 이루는 것은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원형이요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범주다. 짧은 잉카리신화가 안데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 하겠다.

7) 여기서의 ‘원형(archetype)’은 융(Jung)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 구조’가 아닌 엘리아데(Eliade) 식의 ‘모범이 되는 모델’ 혹은 ‘본’을 의미한다(엘리아데 1995, 5).

8) 칸치스(Canchis)에서 채집된 다양한 유형의 잉카리-꼬야리(Qollari) 신화에서는, 쿠스코 왕의 아들 7명이 역대 잉카왕인가 하면 와이나 까빱이 아따왈빠의 아들로 등장해 부자 관계가 역전되기도 하고 망꼬 까빱과 아따왈빠가 합쳐지기도 하는 등 역사성이 완전히 무시되어 있다. 이 신화의 내용은 Ossio(1973, 288-295) 참고.

IV. 종교혼합과 부활의 모티브

신화적 존재로 변한 잉카리에 부활 모티브는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 뿌끼오 지방의 전통적인 사고에 따르면, 죄에 대한 벌은 이승에서 받는 것이고 따라서 현세를 선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채집된 ‘하인신화(El mito de los siervos)’는 모두가 일단 지옥에 갔다가 천당으로 가고 천당에서는 원주민들이 채찍으로 현재의 주인들에게 일을 시키며 부자나 가난뱅이의 관계도 역전된다고 한다. ‘정복’으로 형성된 새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 가톨릭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식민시대에 생긴 신화와 민담에는 이 같은 종교혼합이 흔하게 나타난다. 1970년 찬까라이(Chancaray)에서 채집된 신화에서는 이를 잉카리가 안데스에서 스페인까지 황금다리를 놓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런데 다리 공사 중이던 잉카리를 피사로가 죽였고 그러자 예수가 왔다고 함으로써 스페인인들이 종교혼합을 원주민 저항의 무력화에 이용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원주민 역시 나름대로 종교혼합을 이용한다.

식민초기도 그렇지만 특히 17세기말-18세기초 우상 파괴 작업 속에서도 원주민 의례의 재생 현상이 나타나는데, 종교혼합을 가장해서 안데스 신들이 기독교 성인으로 둔갑하기도 하고 기독교 축제가 안데스 제의에 덧입혀지기도 하며 기독교 축제를 핑계로 안데스 신들에 대한 의례가 행해지기도 한다. 또한 원주민 귀족들은 성체 축일에 과거 잉카왕 앞에서 하던 그대로 스페인인들 앞에서 가장행렬을 했는데, 이때 그들이 푸마, 콘도르 등의 모습을 했던 것은 각 부족의 기원신화를 기억하고 기리는 상징적 행위였다(Burga 2005, 398). 스페인인들과는 반대로 원주민들은 문화혼합을 기억의 보존과 저항 나아가 봉기의 수단으로 이용했던 것이다. 예컨대 ‘와까들의 봉기’인 따끼웅고이 운동의 지도자 중에는 산따 마리아(Santa María)와 마리아 막달레나(María Magdalena)라는 이름의 여성들이 있었다. 심지어 안데스인의 살해자인 산띠아고(Santiago)는 안데스의 신 와마니(Wamani)와 결합, 반 테제가 되어 안데스 원주민들의 해방자인 ‘산띠아고 잉

카리'로 변하기도 한다(Gow 1980, 284-285). 그런데 이런 문화혼합에서 외부문화 수용은 고도의 조건적이고 선택적인 반응으로 전통적 우주론과의 접점이 있거나 당대 상황과 연관될 때에 한해서 일어난다. 잉카리신화에 수용된 부활 모티브 역시 마찬가지다.

아따왈빠가 세례를 받았던 것은 화형으로 인한 시신의 손상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생포, 압송, 세례, 처형으로 이어진 아따왈빠 왕의 죽음도 엄청난 충격이었겠지만, 참수로 신체를 훼손시켜 효시함으로써 잉카왕은 완전히 죽었고 결코 살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린 다음 매장⁹⁾한 뚜빱 아마루의 경우는 영혼의 불사를 믿던 안데스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절망이었다. 그것은 안데스인들의 의식 밑바닥을 긁어 헤집어버리는 사건, 정신 생태계의 자정작용을 파괴해버리는 데 참극이었다. 와망 뽀마의 뚜빱 아마루 참수 삽화에 나타나는 안데스인들 통곡장면이 떠올려지는 지점이다. 그 사건은 정치·사회적 좌절 차원의 상징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안데스 종교관의 해체를 상징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절망의 황무지에서 상상력을 통해 '부활'이라는 희망의 꽃이 피어난다.

남부 안데스 혁명 지도자들의 통솔력과 연관시켜 잉카리신화를 다룬 데이비드 D. 고우는 안데스에서는 요람 속의 아기 예수보다 십자가의 예수 이미지가 더 중요한 상징이라고 지적하는데(Gow 1980, 280), 이는 처형된 예수가 아따왈빠나 뚜빱 아마루를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캡슐리 에스쿠데로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잉카왕들의 죽음이 그 카타르시스와 인식의 상징적 상관성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죽음에 비견된다고 한다(Merino de Zela 1999, 124). 나아가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지도자가 안데스의 신 아뿌(apu)로 변해서 숨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특히 남부 안데스에서는 안데스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지적도 있다(Gow 1982, 199). 그래서 고우는 잉카리와 그리스도를 사회 정의와 동일시 한 기원이 기독교적 요소가 아니라 안데스적 요소라고 주장한다(Gow 1980, 293). 잉카리신화에 가톨릭 식 부활 모티브가 결합되는 데에는 이런 연상 작용이 영

9) 와첼에 의하면, 매장이 참수보다 더 충격이었다(Nathan Wachtel 1976, 209-210).

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

창에 케어 효시했던 뚜빱 아마루의 머리가 차츰 아름답게 변해가기 시작하자 놀란 톨레도가 서둘러 매장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는 이러한 상상력과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742년에 봉기를 일으켰던 후안 산토스 아따왈빠¹⁰⁾를 참수, 매장했으나 몇 달 후 다시 파보니 그의 시신이 여전히 온전했던 사건도 있었다(Flores Galindo 1994, 91). 잉카왕 귀환에 대한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해 했던 일들이 오히려 대중들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결과를 낳고 만 꼴이었다. 이런 풍문 혹은 사실들은 잉카리신화와 그 부활 모티브의 한 기원이 된 것으로 보인다. 로페스-바랄트는 잉카리의 참수라는 단절의 메타포는 ‘정복’으로 잉카사회의 구조가 뿌리 뽑힌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몸과 머리가 다시 합쳐져야 질서를 되찾는다고 하면서 이를 통과 의례의 단절 모티브와 유비시키고 있다(López-Baralt 1996, 27-33). 그는 터너의 견해에 따라 그 과정을 집단 통과 의례로 간주하면서 ‘정복-원주민의 천년왕국운동-이의 현실적 실패-이데올로기 차원으로의 전이-잉카리신화 형성’으로 설명함으로써 잉카리의 부활 모티브를 가톨릭과 연관시킨다.

가톨릭의 영향에 덧붙여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전통적 내세관이다. 안데스의 대표적인 장례 방식은 시신을 미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태양의 제전인 ‘인티 라이미(Inti Raymi)’에서는 태양의 신전 ‘꼬리칸차(Coricancha)’에 안장되어 있던 역대 왕들의 미라를 모셔나와 잉카왕들의 개인 역사 담당 ‘아마우따(amauta, 철학자 내지는 현자)’들이 각각 자가 왕의 무훈과 인자함에 대한 이야기를 낭송했다.¹¹⁾ 까를로스 아라니바르(Carlos Aranibar)는 이 같은 잉카 미라 보관의 주요 성격 세 가지에 대해 논하면서, 부인과 하인을 순장하는 것이 사후의 삶을 돕고 그의 귀환을 돕기 위함이라는 점과 춤이자 노래인 따끼

10) 이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톨릭 식 이름과 잉카왕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11) 그런 이야기의 첫머리에 따완뎨수유의 기원신화가 자리한다는 점은 ‘인티 라이미’가 ‘시원으로의 복귀’ 혹은 ‘원형의 반복’이라는 제의였음을 알 수 있다. 안데스인들은 그 제전을 통해 태초의 시간을 반복하는 일종의 회귀 테마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taqui)로 생전의 무훈을 이야기하며 그의 귀환을 축원한다는 점을 그 중 둘로 들고 있다(Burga 2005, 122).¹²⁾ 안데스 토착 사상에도 영혼 불사와 잉카왕 귀환에 대한 믿음이 존재했다는 말이다. 잉카리신화에 나타나는 부활 모티브가 가톨릭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예수 부활과 관계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잉카리의 부활 모티브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심장한 안데스 신화들도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간치스 꼬차(Ganchis Kocha)’ 신화다. 그 신화는 위라꼬차(Wiracocha) 신이 뱀들의 파괴 행위에 노해 번개를 내리쳐서 뱀들을 바위로 변하게 만들었는데, 그 머리만은 살아남아 거기서 새로운 뱀 몸이 자라고 있으며 몸이 완전해지면 새 생명을 얻고, 세계는 처음과 같아질 것이라고 한다. 이 뱀, 즉 아마루(amaru) 신화가 잉카리신화에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Merino de Zela 1994, 130).¹³⁾ 또한 웨이스(Weiss)에 따르면, 안데스에는 잘렸 으되 살아 있는 ‘구르는 머리(rolling head)’ 신화가 널리 퍼져 있고, 따라서 ‘살아 있는 머리(living head)’ 모티브는 천년왕국운동 과정 중 그 신화로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주제이거나 ‘구르는 머리’ 모티브가 신화적으로 결합된 것이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López-Baralt 1996, 59, 주 13 참조). 이 역시 뚜박 아마루의 처형에 연결되어 잉카리의 부활 모티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안데스의 영혼회귀사상과 일부 신화가 가톨릭의 부활 모티브를 만나면서 대중의 집단 상상력을 통해 메시아 사상으로 재창조되었다고 봐야 한다.

V. 잉카리신화의 메시아사상

‘정복’ 이전에도 안데스에 봉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주로 정복민과

12) 나머지 하나는 누이들의 곡이다. 굵은 글씨는 인용자 강조.

13) 로페스-바랄트는 잉카리를 잉카왕의 지하 표상으로 보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 유가 있지만, 지하 세계의 상징인 뱀을 지칭하는 ‘아마루’라는 이름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

피정복민 간의 정치·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단순한 봉기였다. 이에 반해 따끼 옹고이 운동이 일어난 식민초기부터 줄기차게 이어진 봉기에는 많은 경우 메시아사상이 개입되어 있었다. 안데스인들은 고립되어 살아가 외부와 전혀 교류가 없다시피 했는데, ‘정복’과 식민통치로 대표되듯 타자와 너무나 폭력적으로 만났다. 식민시대에 생겨난 안데스 민담이나 신화들이 ‘정복’의 트라우마에 집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인데, 이런 트라우마의 극복 의지가 바로 메시아사상으로 표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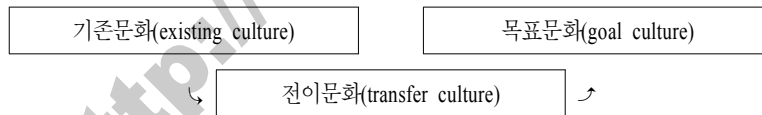
사실 유럽에 의한 식민화 과정에서 메시아사상이나 천년왕국사상은 세계 각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중세 유럽 메시아사상이 성서에 기초한 기독교적 소망 속에서 싹튼 반면, 이들 지역의 메시아사상은 식민이라는 맥락 내의 원주민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의 결과로 생겨난다. 그런데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안데스 지역은 다른 지역, 즉 마야나 아스테카 지역과는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오늘날의 과테말라 지역과 멕시코 지역, 안데스 지역에 나타나는 4개의 민간전승에 대한 비교 연구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와첼은 그 민간전승들이 ‘정복’을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 큰 차이점을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과테말라와 멕시코 지역의 경우 ‘정복’으로 조우한 두 문명이 접점을 찾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안데스 지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단절이라는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Ossio 1973, 35-81). 따라서 세 지역에서 발생했던 천년왕국운동 성격의 봉기가 그 강도나 지속성, 반복성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며, 서두에서 언급했듯, 그 같은 차이는 안데스 메시아사상의 형성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잉카리신화는 현재의 사회질서 기원을 과거의 ‘정복’에 다 두면서 잉카리의 회귀와 그에 따른 대변동, 즉 식민세계의 종말이라는 미래에 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스페인의 침입이라는 빠차꾸띠가 세상을 뒤집어 놓아 위의 것, 즉 태양의 신인 잉카가 아래로 내려갔고, 잉카왕의 지하 표상인 잉카리가

땅 속에서 휴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생을 예비할 아주 풍부한 신화적 함의를 가지게 된다(López-Baralt 1996, 32). 리마나 쿠스코, 스페인 등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잉카리의 머리가 지금 회복 중에 있고 그래서 언젠가는 되돌아온다는 생각의 싹은 여기서 자라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 잉카리신화를 종합해보면, 권력의 축이 ‘위라코차-잉카리(태양의 아들)-에스파냐리(혹은 가톨릭의 신, 예수)-잉카리’로 옮겨 갈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되돌아올 잉카리가 스페인리의 시대인 현재를 뒤집어 놓을 메시아요 그의 귀환으로 천년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라 하겠다. 당연히 이 메시아사상에도 가톨릭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안소니 월라스(Anthony Wallace)는 천년왕국운동과 관련해 사회조직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면 특정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한 상징 조작이 가해진다고 본다(황선명 1981, 76). 기존문화를 대체할 목표문화에 대한 강렬한 전망과 민중 선동 메시지가 제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문화에서 목표문화로의 도약은 단순한 상징 조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뽀플 역할을 하는 중간 단계인 전이 문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 같은 상징 조작을 가능케 해주는 문화가 그 역할을 한다.

<표 2>



그러면 안데스의 경우 그러한 상징 조작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또 그 전이 문화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이였을까? 윌리엄 로우는 잉카 가르실라소의 어떤 면모들은 토머스 모어(Thomas More)의 『유토피아 Utopia』보다 훨씬 더 유토피아적인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본다(Rowe 2007, 135). 그리고 플로레스 갈린도는 『잉카왕조사』에는 안데스의 전통적인 이원론적 요소가 전혀 없다고 함으로써(Flores

Galindo 1994, 43) 그로부터 이미 한 명의 메시아를 향한 발걸음을 잃어내고 있다. 뚜빱 아마루 2세의 붕괴 당시, 식민 정부가 『잉카왕조사』를 회수, 금서로 정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Chang-Rodríguez 1991, 44-45). 뚜빱 아마루 2세가 ‘페루의 잉카왕(Inka Rey del Perú)’으로 자처하며 잉카리의 귀환을 최초로 표면에 내세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1723년 판 『잉카왕조사』의 영향이 상당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던 것이다(López-Baralt 1996, 25).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가 독립운동 중 『잉카왕조사』를 말안장 주머니에 가지고 다녔던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와망 뽀마에게서도 토착적인 천년왕국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연대기에 역사적 의미보다 메시아적 의미가 많이 나타나고 또 그가 톨레도 집권기를 빠차꾸띠로 간주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장차 일어날 빠차꾸띠를 최후의 심판과 거의 동일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안데스의 경우에는 위 두 연대기 작가를 비롯해, 앞서 언급했던 쿠스코의 잉카들, 따끼 옹고이 운동의 지도자 같은 식민통치 저항 세력들이 상징 조작자들이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다들 일반 원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그들이 이용한 뽀틀 문화는 가톨릭 사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 형성 배경에 문화적 메스티소라는 상징 조작자들이 존재한다는 언급은 안데스 메시아사상이 가톨릭으로부터의 순전한 전유라는 말로 들리지만, 거기에는 분명 토착 요소도 개입되어 있다. 바로 위 단락의 와망 뽀마와 관련한 언급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 사실 빠차꾸띠라는 개념 자체가 천년왕국 도래의 믿음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게리 어튼 2003, 143). 와첼은 천년왕국의 도래를 회구했던 따끼 옹고이 운동을 ‘변형된 원주민 전통문화의 르네상스’라고 칭하면서 주로 자연물인 전통적 와까가 그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 즉 인간으로 육화(encarnación)되고 내재화되는 변화의 양상이 보인다고 아주 의미 있는 지적을 한다(Ossio 1973, 118-122). 강조하자면, 따끼 옹고이 운동의 인간 메시아사상에는 와까가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잉카리신화에서도 중요한 면모가 관찰된다. 잉카리신

화에는 ‘잉카리-꼬야리’ 전통과 ‘잉카리-에스파냐리’ 전통이 있는데, 쿠스코 통치자와 꼬야 통치자 간의 대결구도를 표현하는 전통은 주로 꼬야 지방에 가까운 페루 남부 지방에서 나타나고 잉카리와 외부 침입자 간의 대립구도가 표출되는 전통은 상당히 폭넓은 지역에서 나타난다(Vázquez 1986, 92-93). 잉카리신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955년 궤로(Q'ero)에서 채집된 신화다. ‘잉카리’와 ‘꼬야리’라는 단어만 제외하면 유럽적인 요소나 ‘정복’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고 오로지 토착적인 면모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신화에서는 두 왕이 적대관계가 아닌 부부관계로 나온다. 또 1972년 아야쿠초(Ayacucho)에서 채집된 신화에서는 역시 부부인 잉카리와 꼬야리가 에스파냐리와 대결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의 신화에서는 꼬야리가 등장하지 않고 잉카리만 등장한다. 정리하자면, 전통적 대결구도에서 승자였던 과거 잉카리 자리를 대립 각이 보다 예리한 제3의 적 에스파냐리가 차지하자, 대립관계였던 잉카리-꼬야리가 부부나 형제로 전이되었다가 단일한 존재인 잉카리가 되어 에스파냐리와 대립한다.¹⁴⁾ 안데스 인들은 단일화된 존재인 이 잉카리를 메시아로 인식한 것이다. 그런데 신화의 이와 같은 변화 양상에도 새로운 사고방식과 고유의 사고방식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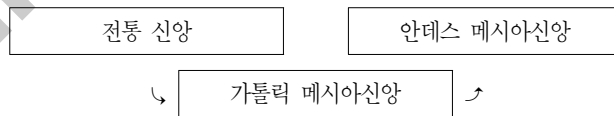
스페인 침입 이전, 잉카들은 전통적인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해 쿠스코를 ‘아난’과 ‘우린’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왕조를 두는 방식, 다시 말해 단일왕조(monarquía)가 아닌 이중왕조(diarquía) 체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벨카밤바에서부터는 그런 이원성이 사라지고 유럽식 정치관을 따른 단일한 왕 개념이 생겨난다(Flores Galindo 1994,

14) 안데스 역사를 고려할 때, 잉카리-꼬야리 전통이 잉카리-에스파냐리 전통보다 오래된 전통임은 당연하지만, 사실 신화 형성 시기 자체는 잉카리-에스파냐리 신화의 전통이 앞선다. 와망 뿌마의 목 잘린 잉카왕 이미지가 뿌끼오 신화에서 대중화되었다가 다시 전통적인 잉카리-꼬야리 신화와 혼합된 것으로 보는 피즈의 견해처럼(Ossio 1973, 444-445), 잉카리신화가 안데스의 과거 역사에 투영되면서 생겨난 것이 잉카리-꼬야리 신화다. 잉카리신화에서 그 둘 간의 대립구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II장에서 언급한 내용과 관계있는데, 잉카리라는 구심점의 등장으로 안데스 내부의 균열이 통합되는 역사가 신화 속에 반영된 것이다.

43). 이런 일원론적 사고는 17세기를 거쳐 18세기 무렵이 되면서 안데스인들 사이에 단일한 메시아 왕 그리고 그가 이를 천년왕국에 대한 상상과 기대를 확산시킨다. 그러므로 잉카리와 꼬야리가 잉카리라는 단일한 존재가 되는 것과 궁극적으로는 잉카리만 승자가 되는 것은 분명 유럽 식 일원론적 사고가 분명하다. 하지만 잉카리-꼬야리가 신화 속에서 부부인 것은 전통의 이원론적 사고로, 쿠스코 창건 신화에 망꼬 까빱과 마마 오끄요 부부가 등장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 각각이 쿠스코의 ‘아난’과 ‘우린’에 거주하면서 그곳을 통치했던 사실이 투영된 결과다. 잉카리와 꼬야리, 두 왕이 대결구도로 전환되는 것도 과거의 잉카제국 정복사가 반영된 것일 뿐, 역시 여전히 이원론적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다. 또한 잉카리-에스파냐리 신화에서 두 왕이 과거에 대립했고 또 현재 잠재적 대결상태에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잉카리신화의 메시아사상은 안데스 전통의 이원론적 사고 위에 스페인 식 일원론이 얹히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보듯, 잉카리신화의 메시아사상에는 안데스 전통의 영혼 회귀 개념, 안데스와 가톨릭의 부활 모티브, 와까의 육화, 이원론과 일원론의 결합, 가톨릭의 심판과 메시아사상 등이 종합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요컨대 잉카리신화의 메시아신앙은 안데스 고유의 신앙들이 스페인어를 해독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톨릭 메시아 신앙이라는 뽀플 문화를 만나 식민통치의 종말에 대한 염원을 향해 극적으로 도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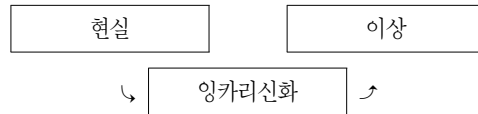
VI. 나가는 말

단 하나의 단어나 문장 혹은 그림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많은 의미를 내포할 때가 있다. 다만 그러자면 그와 관련된 어떤 정황의 사전 공유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짧은 잉카리신화가 안데스인들에게는 수 만 마디의 말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상황이란 것이 ‘정복’과 ‘억압’, ‘수탈’의 트라우마라는 면에서 잉카리신화는 ‘고통 받는 인간들의 신화’다. 쿠스코 창건신화나 잉카리신화에서 창건에 이용된 막대기는 태양신과 지상을 연결하는 ‘악시스 문디(axis mundi, 세계 축)’로 볼 수 있다. 쿠스코는 우주의 배꼽, 우주의 중심이고, 쿠스코의 정신적·공간적 중심에 존재하는 잉카왕 역시 지축의 상징으로 하늘과 땅의 결속 점이라는 의미다. 그리고 우주의 축인 잉카리가 살해당하고 그 머리가 쿠스코에서 리마나 마드리드로 옮겨가는 것은 쿠스코의 시대, 안데스의 시대가 끝나고 리마나 마드리드로 세상의 중심이 이동되었음을 상징한다. 때문에 여러 신화들은 잉카리의 죽음으로 금과 은이 사라져버렸고 그 결과 안데스인들은 지금 가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V장 첫머리에서 언급했지만, 마야인들이나 아스테카인들의 민간 전승은 ‘정복’을 두 문명의 결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마야인들 같은 경우 자신들의 신은 죽는 신이었다고 결론 내림으로써 새로운 신을 받아들이고 새 질서에 적응했다면, 잉카인들은 가톨릭 사상을 이용해 토착 부활 사상을 발전시켜 과거를 재생시켜야 한다고 인식했던 것이다. 잉카리가 귀환하면 하늘과 땅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그래서 충실한 새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믿음은 아직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안데스 대중들의 기대 속에서 죽음을 넘어 삶이 승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잉카리신화에 안데스 창건신화가 결합되어 있는 진짜 의미를 읽을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세상을 가져다 줄 또 한 번의 빠차꾸띠와 심판에 대한 안데스인들 열망의 표현인 동시에 이상 사회로서의 안데스를 재탄생 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안데

스인들에게 잉카리신화는 대망의 미래 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뚝틀인 전이문화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

<표 4>



잉카의 역사가 신화화되고 그 신화가 진실성을 획득해서 역으로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역사가 신화화되어 다시 역사에 영향을 주는 반복 과정, 즉 신화가 자생력을 획득하는 과정에는 잉카리신화가 그리고 그 부활 모티브와 메시아사상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정복’과 수탈로 파편화된 안데스인들의 정체성은 잉카 이전의 신화적 역사에서 자양분을 얻어 보편적이고 범 안데스적인 파완뎀수유의 후손인 원주민들의 정체성으로 표출되고 있고, 잉카리가 그 사회적 상징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Burga 2005, 423). 나아가 20세기를 넘어 지금까지도 잉카리가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는 한, 뚜박 아마루는 마지막 잉카왕이 아니며 잉카리신화 역시 박제된 신화가 아니라 살아 있는 신화라 하겠다.¹⁵⁾ 안데스 대중들 의식의 심연에서 자라온 잉카리신화는 ‘뒤집힌 세상의 기원신화’요 ‘고통 받는 인간들의 신화’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안데스의 ‘집단 구원 신화’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다. 안데스인들은 잉카왕이 다시 자신들을 향해 자애로운 팔을 펼쳐 주기를 기원하며 잉카리신화를 (믿는다고보다는 오히려) 살아내고 있는 것이다.

15) 1975년 쿠스코에서 채집된 신화에 전기, 자동차, 비행기 등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비교적 최근까지도 잉카리신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bstract

En los Andes existe una serie de los mitos curiosos, 'mito de Incarrí'. Estos mitos dan la explicación de por qué los andinos y los españoles son de este o de otro modo. Por lo tanto, el 'mito de Incarrí' es una respuesta de los andinos o los vencidos a la larga tragedia histórica que empezó con la invasión europea. En los mitos de Incarrí, los andinos transforman la historia andina en mitología, y a los Incas, en categoría o arquetipo, es decir, un ser mítico 'Incarrí'.

Según los mitos, Incarrí que ahora desde su cabeza cortada está creciendo hacia abajo volverá a los Andes cuando su cuerpo esté completo y entonces se realizará el juicio. En estos mitos podemos ver la idea de resurrección y mesianismo. Esta idea se parece a la de catolicismo, pero, en realidad, es un resultado de la creación de una cultura sincrética, lo andino y lo católico, además lo antiguo y lo nuevo, lo clandestino y lo oficial. Por lo tanto, el 'mito de Incarrí' es una historia andina mitologizada y es la expresión de anhelo ardiente y intento más ambicioso de convertir al penoso presente andina en el futuro idealizado.

Key Words: Arquetipo, Resurrección, Mesianismo, Sincretismo, Mito de Incarrí /
원형, 부활, 메시아사상, 종교혼합, 잉카리신화

논문투고일자: 2008.10.10

심사완료일자: 2008.10.31

게재확정일자: 2008.11.10

참고문헌

- 계리 어튼(2003), 『잉카 신화』, (임웅 역), 범우사.
- 송영복(2005), 「뚜뵁 아마루 혁명: 반외세와 반기득권을 통한 원주민 사회의 지향」,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8, No. 4, pp. 193-216.
- 엘리아데(1983), 『성과 속: 종교의 본질』, (이동하 역), 학민사.
- _____ (1985), 『신화와 현실』, (이은봉 역),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_____ (1995), 『우주와 역사: 영원회귀의 신화』, (정진홍 역), 7판, 현대사상사.
- 우석균(2005), 「안데스 유토피아」, 이베로아메리카논문집, Vol. 7, No. 2,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pp. 1-30.
- 황선명(1981), 『민중 종교 운동사』, 제2판, 종로서적.
- Aibar, Edmundo Bendezú(2003), *Literatura Quechua*, 2^a ed., Lima: Universidad Ricardo Palma Editorial Universitaria.
- Burga, Manuel(2005), *Nacimiento de una utopía: muerte y resurrección de los incas*, 2^a ed., Lima: Editorial de la UNMSM.
- Chang-Rodríguez, Raquel(1991), *El discurso disidente: ensayos de literatura colonial peruana*, Lima: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 Flores Galindo, Alberto(1994), *Buscando un Inca: Identidad y utopía en los Andes*, 4^a ed., Lima: Editorial Horizonte.
- Garcilaso de la Vega, Inca(1977), *Historia general del Perú*, tomo III, 2^a ed., Lima: Editorial Universo S.A.
- _____ (1995), *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 tomo I, (Edición, índice analítico y glosario de Carlos Aranibar), México: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Gow, David D.(1980), “The Roles of Christ and Inkarrí in Andean Religion”, *Journal of Latin American Lore*, Vol. 6, No. 2, pp. 279-296.
- Gow, Rosalind C.(1982), “Inkarri and Revolutionary Leadership in the Southern Andes”, *Journal of Latin American Lore*, Vol. 8, No.

2, pp. 197-221.

- López-Baralt, Mercedes(1996), *El retorno del Inca rey: mito y profecía en el mundo andino*, Madrid: Editorial Plaza Mayor.
- Merino de Zela, Mildred(comp.)(1999), *Ensayos sobre folklore peruano*, Lima: Universidad Ricardo Palma Editorial Universitaria.
- Millones, Luis(2000), *Dioses familiares*, Lima: Fondo Editorial del Congreso del Perú.
- Ossio A., Juan M.(ed.)(1973), *Ideología mesiánica del mundo andino*, 2^a ed., Lima: Ignacio Prado Pastor.
- Rescaniere, Alejandro Ortiz(1973), *De Adaneva a Inkarrí: una visión indígena del Perú*, Lima: Retablo de Papel.
- Rowe, William(2007), “When was Peru Modern? On Declarations of Modernity in Peru”, in Nicola Miller & Stephen Hart(eds.), *When was Latin America Modern?*, USA: Palgrave Macmillan, pp. 121-145.
- Urbano, Enrique(comp.)(1993), *Mito y simbolismo en los andes: La figura y la palabra*, Cusco: Centro de Estudios Regionales Andinos ‘Bartolomé de las Casas’.
- Vázquez, Juan Adolfo(1986), “The Reconstruction of the Myth of Inkarrí” (Richard N. Luxton trans.), *Latin American Indian Literatures Journal: A Review of American Indian Texts and Studies*, Vol. 2, No. 2, pp. 92-109.
- Wachtel, Nathan(1976), *Los vencidos: los indios del Perú frente a la conquista española(1530-1570)*(Antonio Escobotado trans.), Madrid: Alianza Editorial.